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렘 강해 설교 28)

성경말씀: 렘32:26-44

예레미야의 부동산 투자, 유다 왕 시드기야의 통치 제10년: 예루살렘의 함락 1년 전(렘39:2)

지금 옥에 갇혀 있다. 그의 사촌 하나멜이 사라고 한 아나돗의 땅은 지금 바빌론 군사들의 점령지 믿음으로 17세겔을 주고 그 땅을 샀으나 의심이 닥친다.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보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고는 낙담이 돼서 기도를 드린다. “창조주 하나님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잘 믿기지 않습니다.” 주님의 응답: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27절)? 하나님 앞에서 위선의 탈을 벗어버리고 지극히 인간적인 기도를 하자. 주님이 아신다.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근본적인 질문

인생을 살면서 어떤 때는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은 어려움을 만난다. 학업, 진학, 직업, 결혼, 가정생활, 교회,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 시체의 <하나님 앞에서 울다> 원주민 사역, 어머니, 아내, 딸, 그런데 그 사람이 무죄 선고를 받는다. 홀아비로 세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 “과연 하나님은 계시는가? 이 모든 일을 아시는가? 이 어려움을 해결하실 수 있는가?”

다윗: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주러 갔다가 골리앗을 죽임, 그런데 영예와 더불어 극심한 핍박이 그에게 닥침, 겨우 살아남아 왕이 되었으나 후반부에 밧세바를 보고 간음하고 살인죄를 저지름.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울증에 빠졌을까? 그 뒤 맏아들 암논이 탐욕을 부리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범하고는 그에게 죽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그의 생명을 위협함. 얼마나 답답할까?

예레미야: 30년 이상을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그의 말은 들은 사람은 바룩을 비롯해 열손가락 안에 들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런데 나라가 망할 시점에 땅을 사라고 하니 믿기지 않는다. 돈을 지불했지만 “하나님 과연 그 말이 맞습니까? 주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음을 잘 압니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믿기가 힘드네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응답

“내게는 하기에 너무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다.”(27절). 나는 모든 육체를 창조한 자다. 전 우주를 무에서 유로 조성한 자다. 그러므로 “너무나 어려워 내가 하지 못할 일은 하나도 없다.”

아브라함: 창12장, 갈대아 우르에서 취하심. 하란에서 데라가 죽은 뒤 가나안으로 데려오심.

창15장 1-6절, 환상, 네 방패, 네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 아이가 없습니다. 엘리에셀이나 복을 주소서.

이 종이 내 상속자입니다. 네 속에서 나올 자가 상속자다. 하늘의 별들, 네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심(6절)

아들이 생기지 않자 16장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라의 여종 하갈을 취해 이스마엘을 낳음

17장에서 99세 때에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그에게 씨를 주겠다고 함. 믿기지 않아 웃음(17:17)

18장에서 문제가 발생함. 주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을 찾아옴. 사라가 만든 음식을 먹은 뒤에 놀라운 일을 말함. 9-15절, 사라를 데려오게 한 뒤에 내년엔 사라에게 아들이 생긴다고 하심. 멘스가 그친 상태, 사라는 89세의 노인, 사라 속으로 웃음, “농담하시는구나”, 사라의 웃음을 지적하시고는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14) 그리고는 21장에 보니 정확히 1년 후에 사라가 아이들 낳음.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미 죽은 사라의 태에서 생명을 창조하신다. 사라도 그것을 믿고는 죽을힘을 다해 아기를 낳음으로 믿음의 어머니가 되었다(히11:11). 이런 하나님이시기에 성경 보존, 부활, 휴거, 하늘로 끌어올리신다. 이래서 우리는 불가능을 모르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불신자들에게 영원토록 죄를 심판하신다.

1. 하나님은 죄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지만 오래 참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신다.
 - a. 갈대아 사람들에게 내주겠다(28). 그들이 예루살렘에 불을 놓고 모든 것을 훼파할 것이다(29). 그들이 섬기던 바알의 제단들과 함께 성전도 다 훼파가 된다.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
 - b. 왕과 통치자와 제사장과 대언자와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멸망한다(32). 등은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돌리지 않았다(33). 계속해 반대 길로만 나아갔다.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음

- c. 자녀들을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몰렉에게 바쳤다. 지금 식으로 말하면 아이들의 영적인 것에는 신경 쓰지 않고 이 세상의 신에게 가져다 바쳤다. 학업, 직장, 결혼 다 좋은데 아이들의 혼을 챙겨야 한다. 마17:26
 - d. 그러므로 기근과 역병을 통해 바빌론 왕에게 넘겨줄 것이다(36).
2.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은 영구히 지속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의 아테네 전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 창조주 하나님 선포(행17:23-29), 30-31
- a.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사람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처녀 탄생을 통해 수태가 되셨다. 그리고는 사람으로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이 일을 하시고는 여전히 참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고후6:2
 - b.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불가능을 모르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을 하신다. 마귀의 그의 천사들을 위해 마련하신 지옥 불속에 그를 던져 넣으신다. 거기서 그들은 마귀와 그의 악한 천사들과 다른 모든 불신자들과 함께 밤낮으로 영원히 고통 받는다. 그들의 고통의 영원무궁토록 올라간다(계13:11). “어떻게 가능한가요?”, “하나님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영원히 긍휼을 베푸신다.

- 1. 바빌론 포로 생활을 갔다가 회개하는 자들을 다시 데려 온다(37). 70년이 지나도 다시 데려오신다. 1945년부터 2013년까지 68년째 이 나라가 분단이 되었다. 우리가 회개하면 다시 붙이신다. “불가능이 없다.” 회개, 회개
- 2. 나라의 영적 상태가 말이 아니다. 목사들로 인한 성도들의 고통이 하늘을 찌른다. 교회들이 상식과 이성을 마비시킨다. 신천지, 박무수 목사의 4단계 구원(벧전1:18, 조상 죄, 예수님의 옷 4조각), 안상홍의 하나님 어머니, 이들만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고 가르쳐서 재림의 소망을 빼앗아가는 수많은 신학교와 교회들, 잘못된 성경으로 성도들을 잘못 인도하는 목사들,
 - a. 사람의 힘으로 이들을 되돌리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 b. 우리의 죄악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는 그보다 더 크다. 마귀가 아무리 강해도 그는 창조물이요, 이미 멸망이 선고된 자이다. 우리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크시다.
- 3.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38). 회개하면 가능하다. “내게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다.”
- 4. 한 마음과 한 길을 준다. 회개하면 가능하다. “내게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다.”
 - a.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회개해야 한다. 구원받은 성도들도 회개해야 한다. 그러면 가능하다.
- 5.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고 내 마음을 다하여 내 혼을 다하여 그들을 확고히 이 땅에 심는다(41).
 - a.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천국 백성으로 삼고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을 준다.
- 6. 과거에 당한 고난을 극복하는 복을 준다(42).
 - a.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과거에 여러 가지 이유로 고난 당한 사람들이 많다. 그 이상의 복을 주신다.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43-44)

- 1. 예레미야의 마음속 의심. 부동산 투자를 제대로 했는지 의심할 때 확증의 말씀을 주신다.
 - a. 백성이 돌아와서 밭들을 살 것이다(43).
 - b. 그리고 이들이 내가 17세겔을 지불하고 내 명령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산 땅 즉 베냐민 땅 아나돗에 도시들을 지을 것이다. 예루살렘에도 짓는다. 모든 옷에다 짓는다.
 - c. 너는 죽어서 그것을 못 본다 해도 괜찮다. 내가 내 때에 이룬다. 내게는 “불가능이 없다.”
 - d.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셨고 그때로부터 2,500년이 지난 뒤 다시 이스라엘을 데려다놓으셨다. 그분께는 “불가능이 없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 2. 우리가 하는 믿음의 일들, 미디어 사역, 아이들 교육, 바른 가정생활, 보기에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그분이 하신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면 된다. 낙심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겨야 한다. “보람,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니라.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하나도 없다. 아멘.